

나를 위한 말하기에 부처

글. 김인선 (디렉터,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2018년 10월,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 열린 정아람 작가의 개인전 '나를 위한 말하기'는 그 소재와 대상이 여성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탓에 페미니즘 맥락의 강력한 메시지 정도로 읽힐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가 다루고 있는 소재가 2016년 발생했던 강남역 살인사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화장실 몰래카메라 현상에 관한 것 등이었고 공공의 장소에서 벌어진 퍼포먼스 영상에는 모두 여성만이 등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정아람 작가를 단순하게 페미니즘에 정착한 작가로 규정짓기는 선부르다. 정아람 작가는 매체를 다루는 이와 대상이 되는 이, 그리고 여기에 반응하는 이 간에 관계의 전복, 그물망처럼 얽혀서 상호 발생시키는 영향력 등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는 작가의 초기 작업에서 강하게 드러났는데 작가가 미국에 머물 당시 발표한 작업 <더 이상 죽은 사람의 사진을 찍지 마세요>(2011)경우를 보면 이러한 관계망을 다루고자 하는 작가의 성향이 좀 더 명확하다. 전시 공간 안에 누워있는 퍼포머는 자신의 심장 박동을 매개로 설치된 카메라의 셔터를 움직이는 장치가 되고, 작가가 설치한 카메라 속으로는 관객만이 담겨진다. 이 장치 밖의 작가는 이 연출을 위한 일련의 작동의 찰나를 주도하였으며 사진이 벽면에 투사되어 현장의 개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이브 퍼포먼스를 펼친다. 이 서로 간의 개입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결과물은 이들 관계망의 증거가 되었고 각자의 역할이 특정 장소와 상황 속에서 상호 영향을 주면서 객체와 주체의 위치가 역전되는 풍경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즉 카메라 뒤에서 연출을 주도하는 역할의 작가, 작가의 시선 안에서 카메라로 옮겨지곤 하였던 퍼포머들의 위치, 이 전체를 관망하는 관객의 역할은 전시장 속 장치들의 반응에 의하여 그 역할이 바뀌곤 하였던 것이다.

개인의 역할과 위치가 상호 작용을 일으키는 지점에 대한 관점을 해석하였던 작가의 태도는 그가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 사회적 문맥이라는 조금 더 확장된 영역을 다룬다. 대표적으로 2014년도에 선보인 작품 <행복하십니까>에서는 행복 전도사 최은희씨가 자살했던 충격적 사건을 계기로 한 영상 작업을 보여주었다. 이는 당시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운동과 맞물리며 사회 속에서 개인의 행복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행복 전도사라는 생소한 직업과 개인의 우울한 삶에 대한 안부를 사회적 맥락 속에서 되묻는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간의 다르지 않은 양면을 접점에 두었다.

2018년의 전시는 앞에서 언급하였듯 몇 가지 실제 사건들을 주 소재로 다루고 있었다. 그것이 단순히 페미니즘으로만 읽히지 않는 것은, 분명 그 사건의 시발점이 특정 성별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이는 어찌되었든 '개인'이 공격당하는 형태였고, 이것이 매체의 개입으로 성별 이슈로서의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작가는 사건을 전달하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미디어' 자체에 집중한다. 이는 작품 <Peer to Peer, Woman to Woman>에서 가장 뚜렷하게 제시된다. 이 구조물에는 작은 구멍들이 뚫려져 있는데, 이는 여성 공중화장실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되는 현상이며 여기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을 수 있다는 공포감을 환기시킨다. 그리고 화장실의 구멍을 화장지로 틀어막는 행위에 의하여 개인간의 유대감이 형성되는 경험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 설치된 화장실 구조물의 외벽에는 조그만 모니터들이 부착되어 있다. 이는 작가가 유튜브에서 떠돌고 있는 영상 또는 사진의 모니터 화면을 다시 촬영한 것이다. 이러한 촬영 행위는 작가를 실제 사건에 대한 미디어적 입장에 위치시킨다. 그것은 개입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을 선택하고 전달하고 확장시키는 듯 보이는 행위이다. 여기서 작가는 흔히 객관적 사실 전달의 목적으로만 인식되는 매체의 영향력과 개입 과정에 대하여 재고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진압'과 '구조'행위의 행동매뉴얼의 유사성을 퍼포먼스로 만든 작품 <공공 신체 프로토콜>은 공공 속에서 다뤄지는 개인의 신체에 대하여 사회적 맥락에 시선을 두고 있는 작가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역시 미디어의 작동 방식처럼 개인이 집단에 의하여 재 맥락화 되는 과정을 다른 형식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우연히 살아남은 내가 당연히 살아남았어야 할 너에게>는 아무런 맥락없이 죽음을 당한 어떤 여성에 대한 추모의 글을 소재로 한다. 당시 포스트잇으로 붙여진 추모자들의 문구를 어눌한 말투로 읽고 있는 외국인의 영상과 이를 함께 발언할 수 있는 무대가 동시에 작동한다. 특정 집단으로서의 '한국 여성'의 비극으로 집중되고 있는 이슈를 남, 여, 국적 등의 구분이 없는 개인 모두의 말할 수 있는 사건으로 인식되도록 유도하는 장치이다. 실제로 작가는 전시에 참여한 외국인 여성의 낭독 영상을 포함하여 성별, 직업, 국적, 나이 등이 다양한 이들 5명에게 이를 읽게 하고 촬영하였다.

우리는 한사람이라도 기분이 좋다면 모두 좋은 것이라는 쓸데없이 우호적이고 낭만적인, 그리고 무지한 사고를 하고 있었던 것 같다. 성별 구분 없이 개인 간에 지켜야 할 예의로서의 행동 규범이어야 했을 뿐 전혀 누군가는 기분이 좋아야 하고 누군가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그런 관계는 개인으로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한 관계일 뿐이었다. 하지만 사회적 입장과 자신의 처지와 여러 가지 여건에 맞물려 발언하지 못한 수 많은 것들이 있어왔다. 사회가 이리 혼탁했다 싶을 정도로 많은 것들이 드러나고 문제시되는 지금의 많은 사건들은 긍정적인 방향으로가기 위한 성장통의 한 가운데 놓여있는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볼 수 밖에 없겠다. 정아람 작가의 메시지는 나약한 개인-그가 될 수도 그녀가 될 수도 있는-이 처한 몇 가지 상황에 대한 속고-페미니즘 이슈가 더해진-로 읽힌다. 그리고 수많은 미디어들이 우리를 끌고 가는 의도를 직시하기를 권고하고 있다.